

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

- 테러경보 '관심'에서 '경계'로 상향(5.2.) -

□ 정부는 5.2.(목)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'테러대책 실무위원회'를 개최하여,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.

○ 특히,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*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'관심'에서 '경계'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.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.

* 주캄보디아 대사관, 주라오스 대사관, 주베트남 대사관,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, 주선양 총영사관

※ '테러경보'는 테러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의 4단계로 구분

- 이 중 '경계'는 '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'에 발령

□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, 우리 공관,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	이한형 (02-2100-2032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진 (02-2100-2044)
<공동>	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	책임자	과 장	양제현 (02-2100-8201)
		담당자	서기관	강민구 (02-2100-8204)